



NEWS LETTER

2021년 3월 15일 Vol. 400

2021학년도 1학기 의료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일산병원 4층 중강당에서 2021학년도 1학기 보직 교직원 및 직급 승진 직원의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조성민 의료원장을 비롯해 김광기 기획처장, 권범선 일산병원장, 최기석 일산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직 교원은 일산병원 진료부원장 산부인과 박현수 교수, 연구부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최준권 교수, P실장 응급의학과 이승철 교수, 진료부장 정형외과 김진영 교수, 교육수련부장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등 5명이다.

또 보직 직원은 기획처 대외협력홍보팀 김명숙 팀장, 일산행정처 총무팀 이상훈 팀장, 재무회계팀 우종필 팀장 등 3명이며, 직급 승진 직원은 행정관리직, 약무직, 간호직 등 5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병원 5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이번에 접종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조성민 의료원장의 1호 접종을 시작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보건의료인 종사자 1,251명이 접종을 마쳤다.

접종대상 보건의료인으로는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다.

이날 접종을 마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던 데이터나 근거를 봤을 때 충분히 맞아야 하는 백신이다. 이번 접종을 통해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접종을 했을 시 훨씬 이득이 커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며 “너무 불안해하기 보다는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불편함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조계종에 자동제세동기 보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는 지난 2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에 자동심장충격기(AED · 자동제세동기)를 보시했다.

이날 채석래 연우회장과 기획예산팀장 정승택 연우회 총무부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만나 AED를 전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얼마 전 사찰에 온 등산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AED를 사용해 구조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총무원 1층 로비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의 역할 중 하나가 의료복지 서비스인 만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채석래 연우회장은 “일산 지역에 동급 규모의 병원이 많아졌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병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친절직원 시상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1년 상반기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친절 우수 교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1년 상반기 친절 우수 교직원으로 혈액종양내과 김달용 교수, 성형외과 전공의 이동윤, 재활의학과 박은영 물리치료사, 82병동 박남순 간호조무사, 총무팀 미화담당 이운숙 직원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에서는 침구과 전공의 장우석, 52병동 전숙진 간호사가 친절우수 교직원으로 선정됐다.

친절 교직원 선발은 고객들과 직원들이 작성해준 칭찬 글을 취합해 선발하고 있으며,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